



섬으로 쫓아간 도시민들



송영택 | 한국어촌어항협회 문화관광팀장

앞을 구하다. 욕지(欲知)

이번 여행지가 욕지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장난스레 욕지라는 이름을 되뇌며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그 곳에 가면 무엇을 알아낼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았다.

8월 26일,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체험행사 출발지 부산 시청 앞. 참가자들은 8월의 마지막 휴일을 어촌에서 보내려 모여 들었다. 21가족 81명이 참여한 이번 여행은 어촌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도록 짜여진 여정이라 큰 기대를 해 본다.

무엇보다 섬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도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하다. 인원점검을 끝낸 후 버스는 오늘의 목적지 통영 욕지도로 향한다.

차 안 참가자들은 유인물을 통해 마을을 살펴보니 더욱 기대가 커진다. 섬마을 어촌이 도시에선 찾을 수 없는 휴식과 여유 잃어버리고 살던 그 무엇인가를 다시 돌려 줄 것 만 같지 않은가?



수산의 도시 통영을 한 눈에, 통영수산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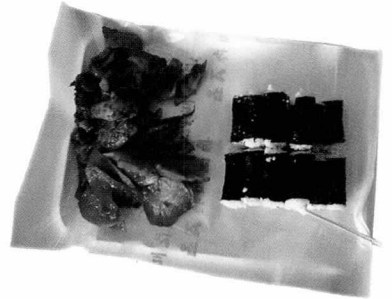
버스는 어느 듯 통영 시내를 지나 미륵도의 산양 일주도로를 지나고 있다. 8월말 늦여름의 햇살은 바다위로 내려앉다 힘껏 다시 쏘아 오른다. 그 뒤로 다도해의 섬들이 편안히 자리 잡으며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 낸다

바깥 경치를 감상하다 보니 버스는 벌써 통영 수산과학관에 도착했다. 통영수



산과학관은 통영시에서 한국 수산업의 1번지라는 자부심으로 시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하여 2002년 완공한 곳으로 알찬 내용물로 꽉 차있다.

전시장을 둘러보고 나와 충무(통영의 옛이름) 김밥으로 출출한 배를 달랜다. 통영에 왔으니 충무 김밥을 먹어보는 것은 당연지사.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것이라 그런지 그 맛이 더욱 감칠 난다.



욕지도로 가는 대형 버스

삼덕항에서 카페리를 탔다. 대부분 승용차인데 45인승 대형 버스 2대를 싣고 나니 모두들 관심을 보인다.

"무슨 일인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완능교?" 욕지도 주민 한 분이 궁금했는지 말을 붙인다.

"아! 예, 욕지도 유동마을에서 어촌찾아가기 행사를 합니다. 여기 분들은 부산분 들 이십니다" "섬마을에 뭐 볼끼 있겠는교?", "아닙니다. 섬에 계신 분들은 모르셔서 그렇지 도시민들이 보면 참 좋아할 겁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재미다. 그 것이 약간은 힘들게 하여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나를 만나 게 된다. 참가자들이 이번 여행을 선택한 것도 부산에서 매일 바라보는 바다와는 또 다른 바다를 만나고 싶어서 일 것이다.

섬마을에서 즐겨보는 바다. 기대되는



욕지도 유동어촌체험마을...

배에서 내리자 김수덕 유동마을 어촌계장과 한종원 이장이 기다리고 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놀다 가이소"

유동마을에서 즐기는 우리만의 해수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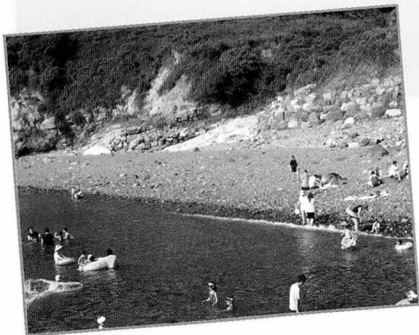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는 유동마을은 동서로 바다를 끼고 양지바르다는 양판구미, 안쪽의 안팎, 바깥쪽의 바깥팍으로 나누어 20여가구 39명이 모여 사는 소담하고 조용한 어촌이었다.

80여명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니 마을 전체가 흥이 난다.

1집에 2~3가족씩 나누어 민박에 여장을 풀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수욕장으로 향한다. 해수욕장은 지난해 유동어촌체험 마을을 조성하면서 정비한 곳으로 모래는 없고 몽돌밭으로 되어 있었다. 따뜻한 햇살아래 파도도 세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참가자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도시 인근 해수욕장에서 수만명이 뒤엎키는 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



리만의 해수욕을 즐기는 행운을 만끽했다.

애들 뗏은 해수욕장 옆 갯바위로 이동하여 돌을 재치며 고동잡기에 정신이 없다.

이렇게 바다를 즐기며 바다생물들과 가까이 하면서 바다를 배우고 바다를 느끼다 보면 바다와 어촌을 사랑하게 되리라. 해수욕과 고동잡기 그리고 마을을 둘러보고 나니 벌써 저녁시간이다. 저녁은 각자 민박집에서 직접 해 먹기로 했다.

가족들에게 마을 특산물인 돌멍게가 푸짐하게 나눠졌다.

돌멍게는 검은 딱지가 붙어 있고 표면이 거칠어 꼭 돌덩이 같이 생겼으나 칼로 반을 갈라 그 속을 꺼내 먹으니 그 향이 그만이다. 이 돌멍게는 해양수산부가 참가한 '맛따라 찾아가는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도 선정 소개되기도 한 유동마을 특산물이다.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와 수산물 시식이 이어졌다.

구워먹을 수산물은 이 곳 정치망에서 갓 잡은 고등어와 전갱이다. 싱싱함이 도시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숯불에 바로 올려 놓고 마을 아주머니가 소금을 척척 쳐 구워 주니 그 맛이 꿀맛이다.

간단한 게임과 함께 노래를 가족별로 한 곡씩 불러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늦은 밤이다. 이 재미의 여운을 뒤로 한 채 잠자리로 돌아오며 저 멀리 밤바다로 눈을 돌려본다. 칠혹같은 어둠이 저것 이구나. 이렇게 유동어촌체험 첫날이 지나간다.



어업 체험을 통한 새롭게 발견하는 어촌

어촌은 언제나 새벽이 분주하다.



새벽 4시 정치망(호망)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착장으로 모여들었다. 아직 잠이 덜 깬 표정들이었지만 어업 체험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닌지라 모두들 잔뜩 기대에 차 있는 모습이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배에 올라 타 어장으로 향한다.

정치망 끝에 매어둔 바지(뗏목)선으로 옮겨 탄 체험객들은 선장의 손익은 놀림에 감탄이 절로 낸다.

선원이라야 선장과 선장의 아버지가 전부다. 조업은 선장이 혼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선장의 빠른 손놀림은 항상 아버지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 아버지의 힘을 덜어 드린다.

너울이 쳐 멀미가 인다. 이 흔들리는 곳에서 선장은 육지에서 보다 더 날랜 몸동작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어업체험이다. 사람이 사는 곳을 바로 보는 것.

바다는 아름다운 볼거리지만 넘치는 곳이 아니라 힘겹지만





사람의 땀내음이 물씬 풍기는 싱싱하고 건강한 곳인 것이다.

정치망에서 그물을 올리며 목을 죄어 나가자 바다 속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흥미하게 움직인다. 이 또한 체험객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다. 모두들 '우와' 하며 소리를 쳐대고 있을 동안 선장은 묵묵히 양망기에 그물 줄을 걸어 올리고 있다.

체험객들이 몰려 작업 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겠는데 별 표정이 없다.

"자! 어업 체험하러 왔으니 그물이나 한 번 당겨 보소" 모두들 재미있어 하며 그물을 걷어 올리는 데 힘을 보탠다. 그러자 은청빛 고등어와 갈치, 전갱이 등이 이리 저리 날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저 것 봐! 고기들이다"

작업이 끝난 후 선장은 특하니 한 마디 던진다. "직접 잡아 봤으니 물고기 가져가 아침에 해 무소(드세요)"



빛속의 욕지도

마지막 어촌 체험인 낚시 어선을 타고 고등어 양성장, 가두리 양식장 등 마을 주변 어업 시설과 바다 절경을 둘러 보는 시간.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밀려오더니 장대같은 비가 내린다. 1시간을 기다려 봤지만 그칠 기미가 없다. 비 뿐만 아니라 돌풍이 불어 유동마을에서 승선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참가자 모두들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아침부터 진행상황을 수시로 살피던 김수덕 어촌계장님께서 제일 아쉬워한다.

"고등어 양성장을 봐야하는데..." "고등어는 난 바다에서 오는 물고기잖아. 그래서 잡으면 바로 죽어버려. 이 놈들을 양성에 넣어 적응 시켜줬다가 도시로 옮겨 가는 거야. 도시에서 고등어 회로 먹는 거지... 이 걸 보여 줘야하는데..." "그리고 저 밖으로 나가 삼여 가운데로 지나가면 그거 정말 장관인데..."

그래도 배는 타보기로 한다. 유동 마을 앞바다는 파도가 거칠어 힘들 것 같고 파도가 열은 섬 북쪽에서 탄다.

배는 신나게 달려 나가 연화군도 일대를 돌아본다. 연화도, 상노대, 하노대, 적도... 섬들을 돌아보며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빼어난 절경들을 만난다.

마을을 떠나오자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들이 나와 배웅을 한다. "안녕히 계세요. 잘 놀다 갑니다." "그래 다음에 꼭 한 번 더 와요." "그래야지요. 유



동마을 참 좋네요"

욕지,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이 저런 모습이었나?

생명력이 넘치고 사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어촌에서 도시민들이 찾아내어 가는 것. 이런 것을 느끼려 도시민들도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왔겠지. 옆 자리의 어린이가 엄마에게 말을 건넨다 "엄마! 또 오자!" 